

월요광장



노 경 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낙선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고 한다. 낙선자에게는 그냥 시니컬하게 웃고자 하는 얘기로만 들리지 않을 것 같다.

정치에서 낙선은 병기지사상이지 결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낙선자가 툴툴 털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선한 후보가 할 일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남의 탓보다는 공손하고 품위 있게 패배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둘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을 위해서는 후임자를 위해서든 다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먼저 겸손한 태도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광주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폭로와 비방, 고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4월 10일 선거일이 다가오자 대다수의 탈락 후보들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며 민주당의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발표했다. 광산갑의 이용환 후보 낙선 인사가 "경쟁 후보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있어 품격 있고 인상적이었다. 물론 얼마나 앙금이 남아있었는지 끝까지 묵묵부답인 탈락 후보도 있다.

선거에서 지는 것은 그간 고락을 함께한 사람들과 이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사별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한다. 선거과정에서 도와준 자원봉사자, 지지자에게 시간을 들여 관심과 함께 감사를 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후보자 못지않게 상실감에 빠져 있는 선거운동 팀원을 앞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

는지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데이터 정리는 귀찮지만 생략할 수 없는 일이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정성없는 와중에 얻은 마지막 정보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관해두어야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귀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들의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 선거 결과가 어떻든 잊지 않고 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는 고통스럽지만 패배를 복기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보는 일이 남아 있다. 그간의 데이터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교훈을 얻는 것은 다음 기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패배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게 하고 심기일전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다. 또다시 패배하고 싶지 않다면 패배에서 교훈을 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당선자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다음 선거운동 팀을 꾸리는 것은 선거운동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선거에서 떨어져 물러난 사람의 슬픔과 고독, 그 처량함이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승리를 거둔 수많은 후보들이 대부분 최소한 한 번은 패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교훈으로 낙선에 대한 위로를 대신하고 싶다.

수필의 향기



박 용 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우중 낙화

“이 꽃 보고자 겨우내 견디어 내더니, 꽃 피니 가는 건 무슨 심보인가?”

마지막 고별을 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 그 등 뒤로 능주 할머니의 한숨 소리. 자기도 빨리 데려가려는 한숨이 먹구름보다 더 묵직하다.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엄금엄금' 화관까지 기어 나온 분이다.

“저리 꽃잎은 툭툭 잘도 떨어지는데, 이놈의 목숨은 이따기 구차스럽게 안 떨어지는데...”

할머니의 푸념이 뉘드러오만 들리지 않는다. 사람을 희롱하는 듯 하동하동 떨어지는 낙화, 우두망찰 바라보는 표정 없는 노인의 눈빛.

“나는 지금 갑니다. 내년 봄에 또 찾아와 활짝 필 터이니...”

바람에 실려 가면서 나뭇대는 꽃잎 소리가 아련히 들리는 듯하다. 무연히 강 건너편으로 날아가는 꽃들을 본다.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낙화는 너무 잔인하게 화려하다.

봄비를 맞으며 산에서 내려온다.

지난 겨울이었지 싶다. 마을회관에 나온 달아실 할머니는 유독 자식 자랑을 자주 했다.

“자식 자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소. 할매 자식들 본지 벌써 몇 년째야?”

사람들은 달아실 할머니가 자식을 자랑한 이유를 안다. 벌써 몇 년째 고향에 발길을 끊고 있다. 딱히 당신이 잘못된 일도 없는데 자식들은 어찌 된 까닭인지 모

두 되면됐다. 그건 애써 자기 슬픔을 짓누르려는 당신만의 슬픈 흐느낌인지 모른다.

명절 때, 간혹 오긴 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왔다가 누가 도착할지 서둘러 떠났다. 할머니는 다른 자식들처럼 함께 오순도순 사는 모습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며 떠나는 자식들마다 손을 잡고 애원했다.

“하루만 더 묵었다 가그러이.”

무릇 여섯 남매를 힘들게 키우다 보니 똑같이 키울 순 없었던 모양이다. 형편이 풀리면 고등학교, 그리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녀석은 대학까지 보냈다. 하지만 누군 어쩔 수 없어 중학교까지만 보냈다. 제 운명이고 제 복이려니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된 모양이다.

부모는 열 자식을 키우는데, 열 자식은 부모 한 명을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비가 훑고 지나간 산중에는 산안개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무덤가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가신 이의 한처럼 붉게 피어있다.

“그 자식들, 애미 애를 그렇게 태웠으니, 이제 속이 시원할까잉?”

마을 할머니들의 한숨이 연이어 터져 나온다. 덧없이 흘러가는 구름 같은 인생, 며칠 피지 못하고 떨어지는 꽃잎 같은 삶, 이별을 재촉하듯 이슬비 흩날리는데, 허공을 맴돌던 꽃잎 하나 떨어진다. 달아실 할머니 무덤 위로, 그렇게 삶을 덮고 또 죽음을 덮는다. 그 위로 지금 축축하게 계으른 눈물, 봄비가 내리는 중이다.

기 고

우리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다



이 호 동
광주 경신중 교사
학교폭력 근절 운동가

을 부여하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너무나 아팠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내 아들이 곁에 있어서 더 고맙게도 모르고했다.

“단 한 건의 학교폭력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한 날이 있었다. 그 날은 ‘학폭은 살인이다’라고 정의 내린 날이다.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을지 늘 고민했다. 고민과 실행을 반복한 끝에 ‘학교폭력 예방 7중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나는 이 시스템을 이제 막 교직을 시작하는 많은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렸다. 수업과 업무로 바쁜 선생님들이 반에서 학교폭력까지 일어난다면 나의 신규교사 시절처럼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나의 실패담과 함께 공유해드렸다.

‘학교폭력 예방 7중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학기 초 임원을 뽑을 때 임원의 조건을 반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을 신고 해 줄 사람으로 뽑는다. 시시때때로 주로 일어나는 학폭 사례 및 학폭예방 메시지를 전달한다(조회, 수업 중, 종례 시). 친필에 학교폭력 예방 내용을 365일 적어 놓는다(장난이나 놀림도 폭력이다. 방관도 폭력이다. 괴롭힘을 당하면 즉시 나에게 신고하라). 1-2개월에 한 번씩 학교폭력 피해나 목격한 내용을 자체 조사한다. 반톡방에 학교폭력 관련 뉴스 및 학폭 메시지를 시시때때로 전달한다. 학급 보안관 시스템 운영, 즉 반 모두가 보안관으로서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신고하게 교육한다(누가 목격하든지 목격자는 즉시 나에게 신고하라). 반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학교폭력 피해자 돕기 바자회, 생일

축하 파티, 학교폭력 예방 교실 캠페인 등등).

위 학교폭력 예방 7중 시스템은 학폭 근절을 위한 나의 수년간의 고민과 실행으로 만든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반에 정착시키기 전과 정착시킨 후는 확연히 달랐다. 이 시스템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교사의 교권까지 지켜준다. 교사의 교권까지 지켜주는 이유는 이 시스템 안에는 학생의 행복을 바라고 학생을 살리겠다는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과거의 나처럼 학폭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또한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2005년 교직을 시작할 때, 그때의 그 마음이기도 하다. 결국 이 시스템은 학창시절 학폭 피해를 당한 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나의 과거는 아픔이 아닌, 기억하기 싫은 고통이 아닌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시때때로 한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폭 피해 신고를 하였고 목격한 학생이 학폭 신고를 해주었다.

큰 산봉을 내는 것은 작은 봉우리 하나이다. 처음의 작은 봉우리는 물 한 바가지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방치하면 소방차 10대가 와도 끄기 힘든 큰 산봉이 된다. 그러기에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하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다. 나는 처음의 작은 봉우리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누군가는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다.

社說

순천 정치권 ‘국립 의대’, 상생·화합 정신으로

전남권에 국립대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현안이 순천대를 비롯한 순천지역 정치권의 전남도 공모 불참 선언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병은 순천대 총장은 지난 18일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국립 의대 선정을 위한 전남도 공모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장은 전남도에 공모의 법적 권한이 없다며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서 공모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대는 앞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의 공모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양 지역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법률·행정·정치적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무시하고 의대 선정을 함의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 국립 의대 공모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은 순천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다. 당사자인 순천대는 물론 순천시장과 순천시의 회, 이번 총선에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이 한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 첫째, 공모 불참 이유로 든 전남도에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전남도에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에서 모순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날 14일 전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 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도 전남도의 경쟁을 기다리고 있다. 둘째, 전남도의 공모가 동·서부권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정부가 추진하면 지역간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전남도의회를 비롯해 순천을 제외한 전남지역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30여년만에 전남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순천 정치권은 소지역주의를 자극하지 말고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요구를 되새겼으면 한다.

환경오염 폐현수막 재활용해도 애물단지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폐현수막 처리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현수막의 대부분이 소각처리 되는 탓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재활용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가 끝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정당의 의견을 담은 정치 현수막과 각종 광고 현수막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총선 기간 사용된 현수막은 2938매였다. 여기에 선관위가 투표 안내를 위해 게시한 현수막까지 합치면 총 4794매에 달한다. 또 최근 3년간 광주 자치구에 걸린 뒤 폐기를 처리된 현수막 역시 2021년 639 t, 2022년 720 t, 2023년 682 t에 이른다.

폐현수막은 매립할 경우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 방식으로 단순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현수막을 소각하면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같은 발암물질이 나오며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자체가 폐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광주의 경우 재활용률이 3 t에 머무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폐현수막에는 홍보하는 사람의 얼굴 등이 새겨져 있고 오염된 것이 많아 애초에 재활용이 쉽지 않은데다 인체에도 좋지 않아 활용도가 극히 미미하다. 또 장바구니 등 재활용 물품들 역시 디자인과 질이 낮아 인기가 없는 탓에 또다려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현수막 사용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현수막을 활용하거나 거리 현수막과 벽보를 거의 쓰지 않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불탄다. 각 정당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 역시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현수막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박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작물로 신·구 대륙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배됐다. 식용보다는 용기 생산을 위해 재배된 식물이라는 점도 여는 작물과 다른 특징이다. 1만년 재배 역사를 거친 박의 전파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다. 빙하기에 아메리카로 건너간 고(古)아시아인에 의해 전파됐다는 아시아 도래설이 있다. 박 열매가 물에 잘 뜨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파진 표착물(漂着物)이라는 가설도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박이 쌀·밀과 더불어 매우

서 박이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에 유입돼 삼국시대에 이르러 품종이 다양·대형화했다고 분석했다. 백제시대 유적인 충남 서천 봉선리 목곽고(木槨庫·나무 저장고)에서 출토된 박 껍질 두께는 5.5mm를 웃돈다. 아생종의 껍질 두께가 1.5mm에 그치기 때문에 두터워진 두께는 재배의 특징으로 간주된다. 재배·순화과정을 거치면서 껍질이 두꺼워지고 커져 바가지 등 생활용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박은 고려시대 문헌인 동국이상국문집(東國李相國文集)에서 여섯 채소 가운데 하나로 꼽혔고 조선시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전통식물 박

한반도 유입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박 식물유체(종자와 열매껍질)는 주로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충주 조동리, 천안 백석동 고재마을, 안동 저전리, 논산 마전리, 밀양 금천리 등 5곳이다. 중국, 일본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아직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박 유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세민 목포대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원 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역사와 과학)에 기고한 ‘한반도 신·석·철기시대 박의 재배와 이용’ 논문에

여섯 채소 가운데 하나로 꼽혔고 조선시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도 겨울철에 대비한 채소의 하나로 거론됐다.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조에는 바가지를 두드려 악기로 썼다는 기록도 있다. 역사 깊은 식용 작물이지만 초가지붕에 주렁주렁 달린 박은 옛 얘기가 됐다. 박 요리를 찾는 사람들이 드물고 맛을 기억하는 이들도 줄고 있다. 표주박을 만드는 일은 보기드문 광경이 됐다. 세상 변화를 타할 일은 아니지만 전통 식물이 잊혀져가는 현실이 아쉽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0195 <FA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FAX 222-0195 <FA 222-0195>	
전남본부 220-068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